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곳모님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3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채널A 아침뉴스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2013 MBC 창사특집 함께 하는 세상 영사들의 사랑 나눔 1~2부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튜튼생활채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생생 정보통 스페셜(재)(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 12	50 VJ특공대(재)	00 MBC 정오 뉴스 20 TV속의 TV 20 MBC 네트워킹 특선 〈장석주의 예계해 인문학 기행 2〉	00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00 뉴스특보	00 TV이교리(재) 50 콘서트 필(재)			30 피우자 민들레
2 0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KBC컬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부부극장 콩깍지(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유치원 콩디콩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40 우주! 신나는 세계여행 베스트	10 우리아가 달라졌어요(재)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튜튼 생활채조(재)	25 아기 종별레 포포(재) 55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재)	30 꼭? 꼭! 키즈스쿨	00 안녕 자두아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지도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0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05 세레포트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가요베스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 드라마 〈투바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기운 말 하나〉
8 30 그대 그 사람 스페셜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월드셀린지 우리가 간다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00 가요무대 55 문/화/신/책 포플러	0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	00 월화 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11 00 명랑해결단 초특급 정보 베스트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독일 미래를 이끌다 1부 마이스터와 히든 챔피언〉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이영돈PD 먹거리 X파일(재) ①:20 특별기획 미래과학 콘서트 1부	30 문화해결파 ①:10 T타임 40 알약특목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45 스포츠 특선 〈2013 LG배 여자야구〉 ①:50 바비킴·이루마의 TV예술무대	35 나이트라인 ①:05 SBS골프

EBS

06:10 디문화 곁으로 열전	10:20 요리비전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8:15 정글북
07:00 미술탐험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8:3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07:15 정글북	11:00 탐스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30 퍼즐게임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9:50 꼬피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5:45 와글와글 친구들	20:00 EBS 뉴스
08:00 덩동덩 유치원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6:00 덩동덩 유치원(재)	20:20 요리비전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6:20 캐니멀	21:30 한국기행
08:35 방구대장 뽀뽀이	13:10 줄거은 수학 EBSMATH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정음·셈 고을의 탄생〉
08:50 곰디와 친구들	13:20 배움너머	16:45 곰디와 친구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10 시계마을 타키토	13:30 꿀꿀 폐파는 줄거위	17:00 방구대장 뽀뽀이(재)	〈한국인과 영어〉
09:20 부모	13:45 비두와 친구들	17:15 시계마을 타키토	22:45 달라졌어요
〈도전, 기차여행 / 걷는 엄마, 똑똑한 태아〉	14:00 잘나 체리우스 박사님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10:00 한국기행	14:15 탐가방이 이야기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23:40 생방송 EBS교육 대토론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0:50 내신 6강	〈수학상〉	13:00 탐스런
01:40 "	〈지리〉	14:00 2015 수능 스타트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수학 A형(1)〉
03:20 "	〈독서와 문법〉	15:00 "
04:10 "	〈수학 I A형〉	16:00 "
05:00 "	〈수학 I B형〉	17:00 "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18:00 탐스런
06:40 교과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19:00 "
07:30 "	〈Basic Grammar〉	20:00 "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22:00 교과특강 올림 #포스
09:10 "	〈동아시사이사〉	23:00 세계의 아이들
10:00 "	〈경제〉	23:5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10:50 "	〈생활과 윤리(1)(2)〉	

EBS플러스2

07:00 하하불의 상상놀이테(1)~(3)	15:50 "	〈국어 4-2〉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20 "	〈국어 4-2〉
08:30 나의 성공비결	16:50 "	〈국어 6-2〉
09:00 줄거은 수학 EBSMATH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09:10 TV 중학 1학년	18:00 "	〈사회〉
09:50 "	〈수학 ①(상)〉	18:40 원더풀 사이언스(1)
10:30 "	〈수학 ①(하)〉	19:30 원더풀 사이언스(2)
11:10 "	〈역사 ①〉	20:20 EBS 문화사 시리즈
11:50 중학 2학년	〈영어〉	〈제3편 지금도 미로니에는〉
12:30 "	〈문학〉	21:20 등업산공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 3-2〉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22:40 중학 3학년	〈영어 3-2〉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23:20 "	〈문학3〉
15:10 스쿨랜드	24:00 EBSe 생활영어	
15:20 초등 내공 나눔	〈국어 3-2〉	24:30 나의 성공비결(재)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2월 2일(음 10월 30일 壬寅)



36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48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보인다. 60년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지속 가능해야만 의미가 있다. 84년생 임의적이라면 차질을 빚으리라. 행운의 숫자 : 58, 67



37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니라. 49년생 일단 벗어날고 봐야 한다. 61년생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73년생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가 절실할 때다. 85년생 분명히 해줘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6, 23



38년생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0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관점에서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62년생 이익이 따르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74년생 기대 했던 것은 이미 물거품이 된지 오래다. 행운의 숫자 : 87, 79



39년생 감문을박하면서 다각적으로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된다. 51년생 곧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63년생 새로운 기회의 빛이 비추고 있느니라. 75년생 황금한 일이 생길 것이니 귀를 열어 두자. 행운의 숫자 : 74, 03



40년생 할 말은 꼭 해야만 하느니라. 52년생 의외의 탈이 생겨서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64년생 순리에 따르는 것이 해법이다. 76년생 자주 접하다보면 능숙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7, 36



41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3년생 고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느니라. 65년생 박차를 가한다면 성과를 보겠다. 77년생 상호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81, 14



42년생 상하간에 이해와 배려가 따른다면 파생 효과가 크다. 54년생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66년생 할 일이 밀려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78년생 바로 잡아야만 뒤달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5, 48



43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느니라. 55년생 뜻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67년생 불합리하다면 무리 없이 제이 되어야겠다. 79년생 하늘의 도움을 믿어라. 행운의 숫자 : 83, 27



44년생 길사가 모아져서 복을 받게 되리라. 56년생 성과를 가르는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68년생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80년생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37, 75



45년생 함께 어울린다면 다채로운 성과가 열릴 것이다. 57년생 완성도를 높여야만 할 때이니라. 69년생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1년생 먹으로써 대한다면 상태를 감화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6, 89



46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성과가 따른다. 58년생 쉽없이 꾸리는 풀은 이리가 길 틀어 없느니라. 70년생 오랫동안 누적 되어 온 것을 종합하게 된다. 82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 속에 희망이 싹트리라. 행운의 숫자 : 32, 56



47년생 전력투구에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59년생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71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83년생 기본 개념을 중시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7, 3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령” ☎010-9790-8237

“드라마 출연 결심

남편 응원이 컸죠”

한혜진, SBS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복귀

지난 7월 대중의 큰 관심 속에 축구선수 기성용과 화촉을 밝힌 배우 한혜진이 SBS 새 월화극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불륜’과 ‘이혼’이 중심 소재인 만큼 행복한 신혼을 보낼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결혼의 의미를 성찰해보겠다’는 제작진의 의도대로 드라마가 전개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 영등포구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BS 월화극 ‘따뜻한 말 한마디’ 제작발표회에서 한혜진은 “가정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남편이 격려줘서 마음 편하게 왔다”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한혜진은 “솔직히 석달을 고민했다. 제가 ‘왕팬’인 하병희 작가님께 러브콜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던 차였는데 남편이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서고픈 마음과 연기자자가 카메라 앞에 서고픈 마음이 같을 거다. 당신은 아내이지만 연기자이기도 하다. 즐겁게 하고 올라’고 격려했다”며 작품을 택하던 무렵을 떠올렸다.

드라마는 결혼을 되돌리고 싶은 두 부부가 엇갈리는 관계 속에 서로 욕망과 분노에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특히 두 가정의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한혜진은 서른세 살 주부 나은진 역할을 맡았다. 은진은 유부남인 유재학(지진희)과

의 부적절한 관계로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남편 김성수(이상우)를 내조했지만 그의 바람에 아파하다가 실수를 범한다.

한혜진은 “이제 막 가정을 이룬 입장에서 역할이 생소하고 어렵다. 처음 접한 배역”이라면서도 “해보지 못한 광장히 깊고 오묘한 역할이라 즐겁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껴며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혼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복귀작인 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영국에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물음도 제작발표회에서 잇달았다. 한동안 SNS 파문을 겪었던 기성용은 최근 영국 프로축구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아시다시피 당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하기보다 묵묵히 신앙 옆에 있어주는 편이 힘이 될 것 같았다”면서 “결혼해보니 신앙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몇백 배 더 좋은 사람이다. 정말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이다. 제가 배울 점이 많다”며 남편을 치켜세웠다.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드라마 제목처럼 남편이 그에게 해준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

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제가 제일 이쁘다고…아이고, 죄송합니다. 민망합니다(웃음)”라고 했다.

“저희의 내조, 외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엄청난 표현들을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해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짧지만 함께 보낸 시간을 되뇌면서, 곧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며 진행하던 SBS ‘힐링캠프’에서 하차했다. 공교롭게도 복귀작이 힐링 캠프 바로 앞 시간대에 방송된다.

“저희 드라마가 시청률을 견인해 힐링캠프에 좋은 영향이 있기를 가장 바랍니다. 영국에 있을 때도 힐링캠프팀과 연락하며 잘 지냈어요. 여전히 저에게는 은인이고 감사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힐링’ 파이팅!(웃음)”

2002년 데뷔했으니 어느새 연기 경력 10년이 넘었다. 그리고 보니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생각할 때이기도 하다.

“연기 10년차가 넘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복귀를 결정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깨고 싶습니다. 대본을 보니 제 연기가 다 들들나졌더라고요. ‘이 작품이 내게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노력만큼은 좋게 봐주세요.”

/연합뉴스



‘꽃보다 누나’ 시청률 10.5% ... “여행 시작 순조로워”

케이를 채널 tvN의 배낭여행 프로젝트 2탄 ‘꽃보다 누나’가 10%를 넘는 높은 평균 시청률로 출발했다.

1일 tvN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방송된 ‘꽃누나’ 1화는 닐스코리아 조사 결과(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10.5%, 최고 시청률 12.2%를 기록했다. 나영석 PD의 신작 ‘꽃누나’는 배우 윤여정, 김자옥, 김희애, 이미연과 짐꾼인 이승기가 함께 배낭여행을 떠나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첫 회에서는 제작진과 출연진이 유럽 크로아티아로 떠나는데 모습이 그려졌다. 여배우들이 첫날부터 ‘허당’의 모습을 보인 이승기를 장난스럽게 공격하는 모습이 웃음을 줬다.

가수 조덕배의 세가지 사랑



슈퍼맨 아빠의 가족 사랑



다큐 프라임(EBS·오후 9시30분) =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세기, 영어는 한국인에게 근대화로 가는 꿈의 언어였다. 가난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했던 생존의 언어이자 살아남기 위해 배워야 했던 기회의 언어였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영어는 과연 무엇인가. 모국어의 지위를 넘보는 영어조기교육, 해외유학이 양산하는 기러기 아빠, 소득에 따른 영어 계급화 현상 등.

영어가 유입되던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2세기에 걸친 관계망을 통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영어관(觀)의 뿌리, 영어와 한국사회가 맺어온 사회 문화 정치적 관계, 영어도전에 담긴 한국인의 희망과 좌절, 성취를 다각도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 =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다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1985년 불현듯 몸으로 가수생활을 시작하면서 의도치 않게 얼굴 없는 가수로 살아야만 했던 가수 조덕배는 ‘나의 옛날이야기’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등 주옥같은 노래로 단번에 스타덤에 올라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수차례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자연스럽게 가요계를 떠나게 됐다. 태어나 2년 후 걸린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을 짚어야 했던 그에게는 평생 가슴속에 품어야 할 세 여인이 있다. 굴곡 많은 그의 인생에서 조곤 없었던 헌신과 사랑을 보여줬던 조덕배의 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출동하는 든든한 소방관 문권영(41)씨. 그는 밖에선 슈퍼맨 같은 존재지만 집에서는 못말리는 가장이다.

낚시에 폭 빠져 매일 바다로 출몰근하는 그에게 아내 박주희(34)씨와 딸 가연(5)이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지만 마을에 소문난 사람이 넘치는 가족.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면 곧장 다른 집으로 향하는 아내. 알고보니 두 집 살림을 한다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에 실패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주희 씨. 그녀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친정집에 두 딸이 살고 있다. 새 아빠 권영 씨는 아이들에게 성품성품 다가가고 소영(17)과 지영(14)도 권영 씨를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